

북(北)에서의 원효 화쟁사상 연구*

- 한명환 『조선철학전사』(2)(사회과학출판사, 2010)를 중심으로 -

김 원 명**

【주제분류】 한국철학, 불교철학

【주요어】 원효, 화쟁, 해동종철학, 변증법, 유물론

【요약문】 본 연구는 한명환 (2010)의 『조선철학전사』(2)에 나타나는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 가운데 ‘화쟁 사상’과 ‘(화쟁) 변증법’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다. 두 번째로 북의 철학사상 연구 배경으로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살펴봤다. 세 번째로 “한명환의 『조선철학전사』(2)와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을 살펴봤다. 이 내용은 북의 기존 연구들이 누적된 결과물이기에, 누적된 연구물들과 이 책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네 번째로는 “원효 화쟁사상의 본질: 주체적이며 변증법적 사상이지만 지배 계급 요구 반영”을, 다섯 번째로 “원효 화쟁의 논리: 발전된 변증법적 사유지만 상대주의적 궤변”을, 여섯 번째로 “해동종철학의 변증법: 화쟁 변증법 특징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일곱 번째로 “원효 화쟁 사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한계”로 글을 맺었다.

한명환의 원효 화쟁사상 연구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원효가 해동종 철학을 창시했다는 애국주의적 관점이다. 둘째, 원효가 피지배 계급 관점에서 봉건 착취 계급의 진보적 계층을 대변한다는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이는 서구에서 수입된 역사관으로 본 것이다. 둘째 관점의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본 원효의 화쟁 사상에 대한 평가는 첫째 관점의 민족철학을 구성하는 애국주의적 관점과 내적 모순을 가진다. 한명환은 원효의 ‘해동종철학’의 ‘화쟁사상’과 ‘해동종철학의 (화쟁) 변증법’에 대해 ‘김일성주의’와 ‘사회주의(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의 연구와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1994년 북의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지도 이념 명기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조선철학전사』에서 ‘화쟁사상’과 ‘해동종철학의 (화쟁) 변증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김정일 교시를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과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의 관점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과 세계 학계에서 연구되는 유물론과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로 요약되는 북 체제 하에서 북 학자 한명환(2010)의 『조선철학전사』(2)에 나타나는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 가운데 ‘화쟁 사상’과 ‘(화쟁) 변증법’을 소개하면서, 한명환의 원효 화쟁사상 연구 관점을 요약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북 학자 한명환의 원효 화쟁 이해가 북 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와 매우 다르므로, 우선 북 체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할 것이다. 한명환(2010)의 『조선철학전사』(2)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1960년 이래의 조선철학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이다.¹⁾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김유리·서왕모(2019)의 「남북한 화쟁 이해의 비교」와 김원명(2023)의 「남의 철학자가 본 북의 원효철학 연구」가 있다.²⁾

남의 철학자들이 북의 철학을 연구했던 1차 시기는 1988년 연구들이다. 2차 시기는 1999년 전후 시기 연구들이다. 1988년 연구들은 주로 북의 『조선철학사』(상)(1960, 1961)에 나타나는 한국(조선)철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남영(1988)은 『조선철학사』(상)(1960, 1961)가 사회주의 관점의 유물론적 변증법적 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비판한다.³⁾ 둘째, 이준모(1988)는 이 책이 사회주의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도 잘못 기술되었다고 비판한다.⁴⁾ 셋째, 성태용(1988)은 북의 연구는 원전을 인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이해하고 전 인민의 우민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⁵⁾ 이후 남북 각각의 체제 아래에서 남북 학자들이 갖는 연구 특징을 이해하려는 연구들도 나타난다.⁶⁾

1)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209쪽(61쪽), 149-165쪽, 190-200쪽.

2) 김유리·서왕모(2019), 「남북한 화쟁 이해의 비교」, 『한국불교학』 제89집, 한국불교학회 참조; 김원명(2023), 「남(南)의 철학자가 본 북(北)의 원효철학 연구」, 『철학·사상·문화』 제42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참조.

3) 이남영(1988), 「북한의 조선철학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참조.

4) 이준모(1988), 「[조선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참조.

5) 성태용(1988), 「조선철학사의 사실성 문제」,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참조.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의 기술은 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북의 체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북의 철학사상 연구 배경으로서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북의 저술은 기존 연구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누적된 연구물들과 이 책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명환의 『조선철학전서』(2)와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내용으로 “원효 화쟁사상의 본질: 주체적이며 변증법적 사상이지만 지배계급 요구 반영” 그리고 “원효 화쟁의 논리: 발전된 변증법적 사유지만 상대주의적 궤변” 마지막으로 “해동종철학의 변증법: 화쟁 변증법 특장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원효 화쟁 사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한계”로 마무리할 것이다.

2. 북의 철학사상 연구 배경으로서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북(北)에서의 조선철학은 대한민국의 우리에게 어두워 보이는 것이며 낮은 것이다. 이 낮습과 어둠은 1948년 시작됐다. 오구라 기조는 북이 건국할 때를 “중소의중(從蘇依中)의 병영국가”⁷⁾로 규정한다. 1948년은 남(8월 15일)과 북(9월 9일)이 각각 헌법을 선포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한 해다.⁸⁾ 그 이후 남과 북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달라졌다. 남과 북

-
- 6) 김교빈 (1992), 「남북철학계의 시각차와 북한 철학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 『인문논총』 제 11집, 호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고영섭 (2001), 「남북한 불교철학 연구의 실제」, 『오늘의 동양사상』 제5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참조.
- 7) 오구라 기조 지음 (2017), 이신철 옮김 (2022), 『조선사상사- 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75쪽.
- 8) 이명박 정권 출현 전후로 뉴라이트 계열에서 1948년 건국설을 제기하며 세 가지 국가 기원설 견해가 대두됐다. ①3.1운동 기원설(1919년 기원설), ②대한제국 기원설(1897년 기원설), ③1948년 기원설이다. ①3.1운동 기원설(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그 법통을 계승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승만도 1948년을 건국 30년이라 주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1948년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건국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②대한제국 기원설(1897년 기원설)은 1897년 성립한 대한제국이 근대국가의 시작

정치경제 체제의 다름만큼이나, 남북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48년 이전까지 불교 수입과 발전의 공통된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1,700년이 넘지만, 1948년 이후 남과 북 각각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와 교류가 단절된 역사 때문에 불교 철학에 대한 각각의 현재적 해석에 어두워지고 낯설어지면서 앞으로 더욱 멀어질 것이 염려된다. 이 어색함은 남북의 거리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이 상식이 된 남의 사회에서 북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다. 북에서는 김일성(김성주) (1912~94)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시기인 1932년 만주에서 설립된 항일유격대를 국가의 기원으로 삼는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남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 즉 1919년3월1일에 건국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은 왕정국가 ‘조선’에서 1897년 성립한 ‘대한제국’을 1919년 민주정체인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1948년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박정희 등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⁹⁾ 현대 남의 ‘한국’의 본질은 미국과 UN

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했고, 1919년 이를 민주정체로 변화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1948년 기원설은 해방 후 신탁통치 후 남과 북의 헌법 선포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에서 남이 유리한 것은 ①이나 ②가 될 것이다. 뉴라이트는 친북 인사들과 그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③을 주장하면, 남북의 정통성 경쟁에서 북에 유리해지는 주장이 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309-10쪽 참조.

- 9)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309-10쪽 참조; 광재훈 기자, 「尹대통령, 광복회장·죽마고우 만류에도 “독립은등은 건국운동”」, 『프레시안』, 2023년 8월 15일 기사 참조; 이종찬, 「이종찬 광복회장 8.15 시론: 해방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 『조선일보』 2023년 8월 15일 기사 참조; 이철우, 「건국 타령, 이제 그만」, 『동아일보』, 2023년 8월 14일 기사 참조.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해서 당시 뉴라이트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대한제국은 소멸됐고,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고, 유효했기 때문에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신생국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찬은 이승만 대통령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들어 미국을 압박했고,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란 표현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신생국으로 건국되었다는 전상인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다.

군사력에 의존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요약되는 ‘자유민주주의’다. 한국인인 우리에게 ‘조선’은 ‘조선시대의 조선’이다. 이외에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어로 ‘조선’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한다. 현 체제의 남과 북의 국가 기원이 이처럼 같지 않다.

북에서는 북의 조선인민군 원점을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를 조직한 날로 본다.¹⁰⁾ 1932년은 1912년생인 김일성(김성주)이 만20세 되던 해다. 그에 앞서 북에서는 자립을 지향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점을 1930년 6월 30일 카룬에서 소집한 공산주의청년동맹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 회의라고 주장한다.¹¹⁾ 그런데 이 해는 김일성이 만18세가 된 해다. 이때 김일성이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김일성(김성주)은 1931년 19세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1932년 4월 25일 만주지역의 중국공산당 산하 조선인 지대 지대장으로 임명된다. 북 체제는 기본적으로 ‘병영체제’고, 그 이데올로기는 ‘수령주의’와 ‘사회주의’인 중국 의존 국가로 요약된다.

‘주체’를 강조하는 김일성의 공식적인 발언이 확인되는 것은 1955년부터다.¹²⁾ 그러나 1955년과 그 이후 주체의 강조는 그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 1955년 주체를 강조하면서 비판한 이는 소련파의 중심 인물인 박창옥(?~1958)

10)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75-76쪽 참조.

11) 오구라 기조는 “김일성 동지는 또한 이 회의에서 무장투쟁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조선 혁명의 주체적 혁명노선·항일 무장투쟁 노선을 내세웠다”(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90쪽 재인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김일성 동지의 혁명 활동 약력』, 외국문출판사, 1969, 21쪽)는 북의 평가는 김일성 후년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평가한다. 1930년 당시 만18세인 김성주가 ‘주체’에 관한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년의 사상적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일성 후년에 ‘주체’로 결정되는 ‘민족의식’으로서의 ‘조선의식’이 불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89-90쪽 참조.

12) 김일성의 주체 강조는 1955년 이후 6.25 전쟁 책임에 대한 연안파와 소련파 정치지도자들의 비판을 극복하고 정적인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285-6쪽 참조; 290-1쪽 참조). 대외적으로 1965년 처음 인도네시아 연설에서 강조되었다(291-2쪽 참조). 김정일은 1974년 김정일의 후계자 공시 이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전환하게 된다(287쪽 참조).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참조.

과 연안파 최창익(1896~1957)이다. 박창옥과 최창익을 비판하는 논리로 외세를 부정하고 주체를 강조했던 것이다. 박창옥은 1954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1955년부터 주체를 내세운 김일성의 집요한 비판을 받는다. 부수상을 역임한 연안파 최창익은 박창옥과 1956년 8월에 김일성의 1인 독재를 정면 비판했다. 그 후 연안파 최창익은 1957년에 숙청되고, 소련파 박창옥은 1958년에 숙청된다.¹³⁾

김일성은 1959년 ‘정치적 생명’을 처음 말하고, 1972년에 ‘사회정치적 생명’을 공식 문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진행된 북의 정치적 숙청을 고려할 때, ‘주체’의 강조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민족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북의 정치사상을 구축하면서 정적을 축출하고 수령 독재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1960년대에 강화한다. 주체사상에 대한 대외적인 공식적인 언급은 1965년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의 김일성 강연에서다. 그리고 김정일(1941~2011)이 1974년 2월 전국 당선전 강습회에서 ‘전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말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에 김일성 후계자로 결정된다.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한 이가 김정일이다. 또 김정일은 ‘종자론’을 주창해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세습 독재를 정당화한다.¹⁴⁾ 김정일의 ‘종자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곧 김일성주의로 변모하게 된 것을 증명해준다.

남의 대한민국에서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가 붕괴한다. 이후 북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에 대해 초조해진 북은 1994년 헌법에서 국가 지도 이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언이 삭제된다. 이를 계기로 북의 헌법상 국가 지도 이념은 ‘주체사상’만 남게 된다. 김정일은 2008년 병으로 쓰러졌다가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2대 지침으로 명시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국가 지도 이념과 지침이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북의 ‘조선’의 본질은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로 요약된다.¹⁵⁾

13)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85-6쪽 참조.

14)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80-1쪽 참조.

3. 한명환의 『조선철학전사』(2)와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 사상’

한명환의 『조선철학전사』(2)는 2010년 출간된 책이다.¹⁶⁾ 『조선철학전사』(1-15)가 출간된 2010년은 주체99년이고, 그 다음 해인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다. 인쇄일은 8월15일이다. 여기서 보이는 숫자는 북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숫자다. 기획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

북에서의 한국(조선)철학사류는 ①1960년 정진석·정성철·김창원의 『조선철학사』 제1판과, 1961년 제2판을 시작으로, ②1975년 최봉익의 『조선철학사상연구(고대-근세)』, ③1982년 정해섭의 『조선철학사』, ④1986년 최봉익의 『조선철학사개요-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의 지양』, ⑤1987년 정성철의 『조선철학사 II』, ⑥2010년 『조선철학전사』(1-15) 총 6종이다.¹⁷⁾ 조선철학사류 6종의 전체 기조는 1960년 정진석·정성철·김창원의 『조선철학사』(상) 제1판에서 “계급성”과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조선철학사(상)』 제2판 서문에, “사회 과학 분야” 연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 및 “연구”하되,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김일성 교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¹⁸⁾ 2010년 『조선철학전사』(1)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조선)

15)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81-2쪽 참조; 앞에서 밝혔듯이, 북의 ‘수령주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는 ‘변증법’과 ‘유물론’에 기반한다. 일본 여러 학자들이 북을 “명영국가”(오구라 기조), “유격대 국가”(와다 하루키) 혹은 “수령제 국가”(스즈키 마사유키)라고 규정하며 북의 독특한 체제를 규정하기도 한다.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76쪽 참조.

16)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209쪽(61쪽).

17) 정진석·정성철·김창원(1960 제1판, 1961 제2판) 『조선철학사』(상); 최봉익(1975), 『조선철학사상연구(고대-근세)』; 정해섭(1982) 『조선철학사』; 최봉익(1986), 『조선철학사개요-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의 지양』; 정성철(1987), 『조선철학사 II』;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1-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8) 정진석·정성철·김창원(1961 제2판), 앞 책, 「제2판 서문」; 『조선철학사(상)』, 동경, 1962 출간; 『조선철학사(상)』, 평양: 과학원 역사연구소, 광주: 학우서방 1988 출간. 1960년 당시 정진석·정성철·김창원은 학사 교수들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초기 한국(조선)철학사를 집필한 이들이다.

철학사는 “주체사상의 발전사”(10쪽)로서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8쪽)의 철학사로 체계화하는 것이다.¹⁹⁾

한명환 (2010)의 『조선철학전사』(2)에서 원효 철학이 등장하는 곳은 제4장이다. 제4장 제목이 눈에 띈다. “제4장.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불교관념론철학”이다. 남에서는 ‘통일신라시기’라고 기술되는 시기를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로 구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에서는 발해를 신라후기시기의 조선사에 편입해 기술하고 있다. 남 학자들 중 발해와 발해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이에 대해 지금보다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또 ‘불교관념론철학’이라고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남에서는 불교를 ‘관념론철학’으로만 보는 것 같지 않다.

한명환은 북에서 원효철학사상 연구물을 꾸준히 가장 많은 횟수와 가장 많은 분량을 펴낸 연구자다. 이 책 (2010) 이전 원효철학사상 연구로는 2009년에 나온 「3.1 원효의 해동종철학」의 12쪽이 『조선중세전기 철학사상 연구』에 실려 있고, 같은 해 2쪽 4단 분량의 짧은 논문인 「원효의 정토사상」이 『사회과학원학보』에 실려 있다. 2006년에는, 원효 철학사상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고대일본의 초기불교철학 발전에 준 영향」이란 2쪽 4단 분량의 짧은 논문이 『철학연구』에 실려 있다. 1994년에는 「《해동종》철학의 《화쟁》사상」이란 3쪽 6단 논문이 『철학연구』에 실려 있다.²⁰⁾ 이 책 (2010)은 자신의 이전 연구들을 모으고 그 내용을 보강해 상당히 많은 분량인 61쪽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명환 (1994)은 원효를 ‘해동종’ 철학의 창시자로 보고, ‘해동종’ 철학의 특징으로 ‘화쟁’ 사상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뤘다. 해동종의 실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해동종 철학의 특징

19) 박민철 (2019), 「조선철학’ 대 ‘한국철학’: ‘북’의 조선철학 연구 특징과 남북철학의 공동연구 가능성, 『시대와 철학』30-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참조; 김교빈 (1994), 「북한철학계의 전통철학 연구 경향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대와 철학』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참조.

20) 한명환 (2009a), 「3.1 원효의 해동종철학, 『조선중세전기 철학사상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87-98쪽(12쪽); 한명환 (2009b), 「원효의 정토사상, 『사회과학원학보』제2호(무계63호), 사회과학출판사, 37-8쪽(4단); 한명환 (2006), 「우리 민족이 고대일본의 초기불교철학 발전에 준 영향, 『철학연구』제1호(무계 제10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6-7쪽(4단); 한명환 (1994), 「《해동종》철학의 《화쟁》사상, 『철학연구』58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40-2쪽(6단).

을 화쟁으로 보고 화쟁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1절이 “발해의 불교사상”이고, 제2절이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이다. 제2절은 전체가 5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화쟁》사상”이란 제목이고 그 아래 “화쟁사상의 본질”과 “화쟁의 논리” 두 목으로 구성됐다. 제2항은 “존재론”이다. 여기서의 존재론 내용은 일심이문을 다루면서 “일심의 본질”과 “일심의 연기론” 두 목으로 구성해 다룬다. 제3항은 인식론이라는 이름 아래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 담당자’와 ‘인식대상’ 그리고 ‘인식과정’을 다룬다. 제4항은 “변증법”을 다루는데, “변증법” 내용은 ‘화쟁’을 다룬다. 제5항 “사회정치적 견해”는 원효의 ‘정토사상’을 다루는 것이다.²¹⁾

한명환 외 원효 화쟁 사상 연구물을 낸 이들은 최봉익(1975)이 표방하는 기초에서 본격적인 원효철학 연구 결과물을 낸 이는 최봉익, 한명환, 조승환, 최호철, 박철 등이다. 최봉익의 세 편 연구물 가운데, 「원효의 《해동중》불교사상의 본질과 그 반동성」²²⁾ 8쪽이 원효의 해동중철학과 관련한 연구다.²³⁾ 1990년대 들어 원효 철학 연구는 한명환과 조승환의 화쟁에 대한 두 연구가 있다. 원효 철학의 특징을 화쟁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변증법적인 논리를 강조한 개별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원효 철학의 화쟁과 인명론의 논리 분야 연구가 이전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조승환(1998, 2010)은 「원효의 인명사상」²⁴⁾에서 원효가 기존 불교를 전면적으로 비판 극복하며 조선불교의 사상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독자적 연구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조승환은 ‘화쟁’을 서로 모순되는 대립물을 하나의 체계 안에 결합하며, 양자를 종합하여 새로운 입장을 세우려는 ‘논리’이자 ‘방법’으로 평

21)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209쪽.

22) 최봉익(1976), 「제2절 원효의 《해동중》불교사상의 본질과 그 반동성」, 『봉건시기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철학의 전파와 그 해독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7-55쪽(8쪽) 참조.

23) 최봉익(1975), 「제2절. 1)원효의 철학사상」, 『조선철학사상연구 고대-근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최봉익(1976), 「제2절 원효의 《해동중》불교사상의 본질과 그 반동성」, 『봉건시기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철학의 전파와 그 해독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최봉익(1986 1판, 2009 2판), 『조선철학사개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24) 조승환(1998 1판, 2010 2판), 「3.2)원효의 인명사상」, 『인명논리학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18-21쪽.

가한다. 화쟁의 근본사상이 원효의 “여러 저술에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는 바, “『대승기신론소』에서 일심(一心)의 본원, 『대승기신론별기』에서 진(진실)과 속(속된 것), 『금강삼매경론』에서 일체 중생의 동일한 본각(本覺), 『열반경중요』에서 체(體)와 용(用), 『대혜도경중요』에서 실상(實相)과 무상(無相) 등과 같다고 평가한다. 원효철학 이해의 내용이 이전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최호찬 (2005)의 「원효의 논리사상」, 한명환 (2006)의 「우리 민족이 고대일본의 초기불교철학 발전에 준 영향」, 박철 (2009)의 「《해동종》의 특징에 대하여」와 같은 단일 연구 논문이 나타난다. 한명환 (2010)의 『조선철학전사』(2)는 한명환 외 연구자들 내용이 포함되면서 상당히 보강된 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나는 다음 장부터 한명환의 ‘원효의 철학과 그 사회정치사상’ 내용 가운데 1항 ‘《화쟁》사상’(149-65쪽)과 4항 ‘변증법’(190-200쪽)을 차례로 소개하며, 그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껍리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4. 원효 화쟁사상의 본질: 주체적이며 변증법적 사상이지만 지배계급 요구 반영

한명환은 『조선철학전사』(2)의 “제4장.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불교관념론철학”의 제2절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에서 제1항 “《화쟁》사상”을 시작하기 전에 1쪽 조금 넘은 분량으로 원효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북에서는 1960년 처음으로 나온 정진석·정성철·김창원의 『조선철학사』 이후 원효 철학의 핵심을 화쟁사상으로 보고, 이를 ‘주체적인 변증법’(이 논문에서 고안해 사용하는 논자의 용어)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초를 유지한다. 이곳에서 원효가 “우리 나라 해동종 철학의 창시자”²⁵⁾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제1)목 “《화쟁》사상의 본질”은 “해동종철학은 《대승기신론》을 주요의거경전으로 하고 여기에 《화쟁》사상이 결합되어 나온 독특한 불교철학”²⁶⁾이란 말로 끝맺는다. 다시 말해, 원효 철학사상의

25)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쪽.

26)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0쪽.

핵심을 ‘화쟁’으로 기술하고, 원효가 ‘해동종철학’을 창시했다는 것이다. 해동종철학은 ‘불교철학’이며, 가장 중요한 소의 경전을 『대승기신론』으로 하되, 여기에 원효가 화쟁 사상을 가미해 해동종 철학을 창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원효에 대한 기술은 주체철학을 강조하는 북에서의 현재적 관점이 암암리에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술은 원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원효철학사상의 내용을 다루는 제1항이 “《화쟁》사상”이다. 1960년 처음으로 정진석·정성철·김창원(1960 1판, 1961 2판)의 『조선철학사(상)』에서 2쪽 분량으로 원효를 기술하기 시작한 이래로 원효 철학사상의 독특성은 늘 화쟁이었다. 이곳에서도 제1항 첫 문장이 “화쟁사상은 해동종철학의 특징을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독특한 사상”으로 시작된다. 원효 철학사상 이해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쟁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한다. 원효의 『십문화쟁론』 서문 내용을 들어 화쟁사상의 동기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화쟁사상의 본질이라고 한다. 화쟁을 “쟁론을 화합”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여러 불교학 유파들 사이의 쟁론을 화합, 융합해 불교의 사상적 통일을 이룩”하는 사상으로 기술한다.²⁷⁾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주로 도량(승랑)의 사상을 계승한 삼론종철학을 기본조류로, 신라에서는 원측을 계승한 유식종철학을 기본 조류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후기신라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지역과 고구려 일부 지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삼론종철학과 유식종철학 사이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당나라침략자들과 신라 통치배들과 유민들 사이의 관계를 투쟁으로 묘사하고, 삼론종과 유식종 간의 대립을 계급적 및 지역적 충돌과 대립이라는 시각으로 기술한다. 이런 대립모순을 해결할 시대적 요청으로 또 불교의 사상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으로 원효가 화쟁의 방식을 새롭게 탐구했다고 기술한다.²⁸⁾ 논자는 이런 기술을 정반합의 유물론적 변증법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읽는다. 즉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신라지배층을 지배층으로 보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피지배층으로 보고, 그 사이 계급 갈등과 모순으로 투쟁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극복의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그

27)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0-1쪽 참조.

28)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2-3 참조.

러내고, 그것을 원효의 화쟁사상 틀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거의 자세한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전거는 『보살 계본지범요기』, 『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종요』, 『십문화쟁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불교적으로 여러 불교 류파들 사의의 화쟁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초는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라고 본다. 일심의 관점에서만 모든 쟁론이 극복되고 화합될 수 있다고 본다. 한명환(2010)은 원효가 “삼론과 유식, 법화, 화엄, 열반, 반야, 계율, 성실, 구사계열 경전들” 및 “방대한 불교 경전들에 대한 주석”이 “『대승기신론』의 일심 사상에 기초한 불교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본다.²⁹⁾

그러나 제1)목 “《화쟁》사상의 본질” 마지막 부분에서 화쟁 사상이 “불교의 신비주의적 교리를 합리화하고 인민대중에게 더 잘 주입시키기 위하여 나온 사상”이라고 평가한다. 화쟁 사상이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원만히 실현하려는 후기신라봉건지배계급의 계급적 요구가 명백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옛 국가나 지위를 되찾는 투쟁을 거두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이란 것이다.³⁰⁾

한명환은 제1)항 “《화쟁》사상” 시작 전과 1)항의 제1)목에서 전체적으로 원효의 화쟁사상과 해동종철학을 설명하지만, 부정적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원효가 사회정치적이 면에서나 불교사적 면에서 시대적 요청에 잘 응답한 것처럼 보이게 기술한다. 즉, 원효가 해동종 철학을 창시했고, 화쟁을 독창적으로 고안했다는 것이다.³¹⁾ 이 내용은 주체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항 제1)목 “《화쟁》사상의 본질” 뒷 부분에서 원효의 화쟁사상이 계급적 지역적 모순을 무마시키며 착취를 강화하려는 지배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를 한다.³²⁾ 이는 현 북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유물론과 변증법으로 화쟁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도 두 가지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원효 화쟁 사상이 나타나는 저술의 어떤 구절에서 어떤

29)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5-6쪽.

30)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6쪽.

31)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156쪽.

32)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6쪽.

지배계급의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또 이 책 본문에서 근거로 삼는 어떤 원효 저술에서도, 어떤 역사서에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게 이런 평가는 20세기의 유물론적 관점으로 7세기 원효의 화쟁 사상을 관념론적 불교철학으로 규정하며, 근거 없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부분의 설명에서도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원효가 창시했다는 해동종이 실존했던 종파인가? 해동종이 실존했던 종파가 아니라면 무엇을 해동종이라 하는 것이고, 무슨 뜻으로 쓰는 것인가?³³⁾ 둘째, 원효의 화쟁사상을 『대승기신론』과는 별개로, 원효 자신이 주체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체적 고안의 그 발상에 기원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한명환은 원효의 화쟁 사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자기분열적이며 이중적이다. 이런 평가는 수령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병영국가 학자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런 북의 정치 체제의 기조에서 한명환이 원효의 화쟁 사상을 주체철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물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원효 화쟁의 논리: 발전된 변증법적 사유지만 상대주의적 궤변

한명환은 『조선철학전서』(2)의 “제4장.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불교관념론철학”의 제2절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 제1항 “화쟁사상”의 제1)목 “《화쟁》사상의 본질” 설명과 평가에 이어 제2)목 “《화쟁》의 논리”를 구성했다.³⁴⁾ 한명

33) ‘해동종’은 고려시대에 실존했던 종파명이다. 그렇지만 그 개창조와 종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바가 없다. 다만 원효를 개창 조사로 섬겼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를 최남선이 1930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불교-그 동방문화사상에서의 그 지위」에서 원효의 사상을 계승한 종파로 특기하였다. 본 논문의 한 심사자는 이러한 근대 해동종에 대한 연구와 한명환이 말하는 해동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를 제안한다. 나는 이런 논의 제안으로 앞으로 남북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더 나아갈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4)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서』(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6-65쪽.

환은 화쟁 사상을 “쟁론화합의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독특하고 발전된 논리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사상”으로 규정한다.³⁵⁾ 처음 다루는 내용은 『금강삼매경론』(상) 서문의 내용 가운데, 일심을 분석하는 방식을 화쟁으로 규정한다.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중요』, 『법화경중요』, 『대혜도경중요』 등의 모든 원효 저술들이 공통적으로 두 극단을 결합시키는 화쟁의 논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한명환은 원효의 화쟁론이 기존의 불교철학에서의 중도 논리와 대비되는 **새롭고 독특한 논리**이자 **발전된 논리**라 설명한다. 화쟁의 논리와 비교해 볼 때, 중도의 논리는 두 극단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극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극단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는 논리라고 비판한다.³⁶⁾ 한명환은 불교철학 가운데 삼론종철학의 8부중도와 유식종철학의 유식중도를 설명하고, 8부중도는 결국 공으로 유식중도는 결국 식으로 환원되는 존재와 비존재로서 새로운 극단들이 되었고, 두 류과 간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명환은 원효가 『유심안락도』와 『금강삼매경론』, 『십문화쟁론』, 『열반경중요』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양 극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중도까지도 초월**하는 것’으로 화쟁을 제시한 것으로 설명한다. 한명환은 원효가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라는 ‘중도’를 대신하여, ‘중도를 초월했다’는 설명은 다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혹은 다른 것에 의거하는 것이 실지로 있다고 고집하면서 증익변³⁷⁾(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고 혹은 인연으로 생겨나므로 <공>, <무>라고 고집하면서 손감변(있는 것을 없다고 보는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며 혹은 세속에서는 <유>요 불교의 세계에서는 <공>이라고 하면서 두 극단에 함께 의존하여 상위론(서로 모순되는 리론)에 떨어지며 혹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의 중도에 집착하여 우치론(어리석은 리론)에 떨어진다.”(『유심안락도』) “능히 두 끝을 떠났으나 가운데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를 떠나 <유>를 취하거나 <유>를 부정하고 <공>을 취하는 것도 역시 허망한 <공>으로 되며 진실한 <무>가 아니다. 이제 비록

35)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6쪽.

36)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8쪽 참조.

37)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9쪽에서의 ‘증익변’은 ‘증익변(增益邊)’을 잘못 쓴 것이다.

<유>를 떠났으나 <공>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금강삼매경론』)³⁸⁾

한명환이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나에게서는 주목되는 특징은 ‘하나’와 관련된 것이다. 둘을 융합했지만 하나도 아니라는 화쟁 논리는 대립되는 두 극단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논리다. 한명환은 원효의 화쟁 논리 속에서는 둘을 결합할 때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여전히 내포하면서 하나”인 것, “둘이면서 하나”이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것”이 된다고 이해한다. 한명환은 이 해석을 서로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체계 안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거로 『대승기신론별기』의 “이론은 긍정하면서도 스스로 부정하고 부정하면서도 긍정한다. 부정이란 저 긍정을 나타내는 것인 바 부정이 다하면 긍정하게 된다. 또 긍정이란 부정을 밝히는 것이니 긍정이 다하면 부정하게 된다”와 『금강삼매경론』의 “부정함이 없지만 부정하지 않음도 없고 긍정함이 없지만 긍정하지 않음도 없다. 그러므로 리치가 없으면서 리치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렇다고 할 수 있다”를 인용한다. 한명환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원효가 긍정과 부정이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이 논리와 이치가 없는데 이치에 맞고,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³⁹⁾

38)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8-60쪽.

39)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60-1쪽 참조. 한명환은 “무리지 지리, 불연지대연(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을 “리치가 없으면서 리치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렇다”로 번역해 인용한다. 기존 남의 학자들 번역은 보통 “무리지 지리(無理之至理)를 “이치 없음의 지극한 이치”로, 불연지대연(不然之大然)을 “그렇지 않음의 큰 그러함”이다. 이는 한명환이 ‘무리지 지리(無理之至理)’를 ‘이치가 없으면서 이치에 이른다’나 ‘이치가 없는데 이치에 맞는다’로 번역하는 것과 다르다. 남의 학자들 번역은 ‘이치가 없는 것[無理]이 지극한 이치[至理]’라고 보는 것이다. 지성(至誠), 지공(至公), 지심(至心) 등과 같은 용례에 비추어 보면, 지리(至理)는 ‘지극한 이치’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열암(列巖) 박종홍(朴鍾鴻, 1903-76)은 연불연(然不然)을 화쟁의 논리 일종으로 간주한다. 불연(不然) 이기영(李基榮, 1922-96)은 자신의 호를 불연(不然)이라 할 정도로 원효의 중요 날 말로 간주한다. 박종홍(1972)이 『한국사상사-불교사상 편』에서 이와 관련해 인용한 구절은 『화쟁론』 문구다. 이외에 『열반경종요』에서의 구절을 주석에 소개한다. 『화쟁론』 문구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구허(俱許)가 가능한 것이요 또 **그런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불허(不許)하는 것이니 이 **그렇지 않음**이 **그러함**과 다름이 없다.(由非不然, 故得俱許, 而亦非然, 故俱不許, 此之非然, 不異於然)”(『화쟁론』, 37장)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64)도 원효의 불연(不然)·대연(大然)과 비슷한 불연(不然)·기연(其然)을 말해 주목된다. 박종홍은 원효와 최제우 사이 일맥상통하는 점을 주목한다. 박종홍(1972), 『한국사상사-불교사상 편』, 98쪽 참조; 오구라 기조 지음(2017), 이신철 옮김(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

이어서 한명환은 원효가 ‘같고 다름’ 혹은 ‘차이와 동일’에 대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非同非異)고 설명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금강삼매경론』(중)을 인용한다.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동일에 대하여 다르다는 것이요, 다를 수 없다는 것은 차이에 대하여 같다는 것이다. 동일이란 차이에서 동일을 알아내는 것이요, 차이란 동일에서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동일에서 차이를 밝힌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갈라서 차이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차이에서 동일을 알아낸다는 것은 차이나는 것을 녹여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차이는 동일한 것들을 갈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차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⁴⁰⁾ 여기서 ‘차이와 동일’ 혹은 ‘같고 다름’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차이나 동일’ 혹은 ‘같음이나 다름’이 아니다. ‘같음과 다름’이 서로 관련 속에서 통일적인 변증법적 관계를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명환이 원효는 “들을 융합하였지만 하나도 아니고 끝을 떠났지만 가운데도 아니”라는 ‘화쟁’을 고안했다고 평가한다. 한명환은 원효가 ‘화쟁’을 고안해 ‘중도’적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평가한다.⁴¹⁾ 한명환은 화쟁의 논리를 평가하면서, “불교철학계의 일반적 경향에 비교”해 볼 때, “가치있는 변증법적 요소를 시사해주는 상당히 발전된 논리”로 평가한다.

한명환은 ‘화쟁의 논리’를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불교적 세계관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불교의 상대주의적 견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상대주의적 궤변’이라는 것이다. 둘째, ‘화쟁의 논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의 발전을 가로 막으려는 후기신라봉건지배계급의 **계급적 요구가 반영**되어, ‘계급적 대립과 모순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다.⁴²⁾

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212쪽 참조.

40)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62쪽.

41)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9-60쪽 참조.

42)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64쪽 참조.

6. 해동종철학의 변증법: 화쟁 변증법 특징의 긍정성과 부정성

이 부분은 한명환 (1994)이 『해동종 철학의 《화쟁》사상』에서 밝힌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한 것이고,⁴³⁾ 한명환 (2009)의 「3.1 원효의 해동종철학」과 대동소이한 것이다.⁴⁴⁾ 한명환 (2010)은 해동종철학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변증법적 견해”란 평가로 시작하는 제4항 제목이 “변증법”이다.⁴⁵⁾ 한명환은 해동종철학의 역사적 실재를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박철 (2009)은 해동종이 원효가 세상을 떠난 후 황룡사와 분황사의 학승들이 원효의 이론과 학술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표원, 명호, 건동, 연기, 심상, 대연 등을 들고 있다고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다. 박철은 해동종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불교철학이란 점과 불교의 다른 학파들과 달리 사후 형성된 학파라는 점, 두 가지로 설명한다.⁴⁶⁾ 한명환은 원효 저술에 나타나는 화쟁을 현대의 변증법적인 특징으로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발전에서 논 공부정적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는 김정일 교시를 적시하고 있다.⁴⁷⁾ 이 부분에 충실하게 우선은 긍정성을 드러내고 마지막 부분에 부정성을 드러낸다.

한명환은 해동종철학 전반에 화쟁 사상이 있다고 본다. 화쟁 사상이 대립되는 극단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결합시켜보려 하는 사상으로서, 발전된 변증법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시사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해동종철학에 나타나는 ‘모순을 내포한 대립물의 상호 관련과 통일’로

43) 한명환 (1994), 『해동종 철학의 《화쟁》사상』, 『철학연구』제3호(루계 제58호) 참조.

44) 한명환 (2009), 「3.1 원효의 해동종철학」, 『조선중세전기 철학사상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87-98(12쪽).

45)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0-200쪽.

46) 박철 (2009), 「《해동종》의 특징에 대하여」, 『역사과학』제1호(루계 제209호), 47쪽, 2단 참조; 나는 ‘해동종철학’이 조성환의 ‘동방철학’의 이야기와 유사한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조성환 (2022)은 정진홍 (1997)의 연구에 주목하고, 고대부터 한반도 정주민들의 하늘신 강림으로 구성된 ‘건국신화들’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국적 축제인 ‘제천의례’ 전통 그리고 성리학자들의 ‘천명’ 용어 사용과 ‘동학’의 탄생 등을 들어 한반도 정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하늘경험’을 ‘천학(天學)’으로서의 하늘철학 전통을 이어왔다는 연구에 주목한다. 조성환 (2022),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고양: 소나무, 44-73쪽 참조; 정진홍 (1997), 「하늘과 한국인의 종교」 참조.

47)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0쪽.

요약되는 변증법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명환이 사례로 들고 있는 쌍개념들은 진여문과 생멸문, 유(有)와 무(無), 상(常)과 무상(無常), 인(因)과 과(果), 일(一)과 다(多), 실(實)과 허실(虛實), 생(生)과 멸(滅) 등이다.⁴⁸⁾ 이 가운데 하나를 보기 들어 보면, 한명환은 일심 속에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진여문**과 **생멸문**이란 대립물을 상정하고, 이것들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설명한다. 이것이 변증법적 견해라는 것이다. 한명환은 원효가 『대승기신론별기』에서 일심 안의 진여문과 생멸문이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결합된 통일체라는 것은 모순을 내포한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변증법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⁴⁹⁾ 한명환은 원효가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를 체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본질과 현상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한명환은 해동종철학에 나타나는 ‘대립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변증법적 견해를 설명한다. 원효 『대승기신론소』의 “진여의 깨끗한 본체는 실로 더러움이 없지마는 다만 무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현상이 있게 되며 무명의 더러운 현상은 본래 깨끗함이 없지마는 다만 진여가 작용하기 때문에 곧 깨끗한 작용이 있게 된다.”에서 **진여와 무명이 상호작용**하며 일심의 운동을 설명하는 변증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책에서 “진여의 깨끗한 법은 본각이요, 무명의 더러운 법은 불각이다.”에서 **각과 불각이란 대립적 측면의 인식의 운동발전과정**이 변증법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원효가 자체 내에 존재하는 대립적 측면들의 상호 작용으로 **일심의 운동발전** 과정과 **인식발전** 과정을 고찰한 것이 변증법적 원리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⁰⁾

셋째, 한명환은 해동종철학에 나타나는 ‘부정의 부정’이 변증법적 견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원효가 일심의 발전과정이나 인식발전과정에 부정의 계기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진여심이 부정되어 생멸심이 되고, 다시 생멸심이 부정되며 진여심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본각이 부정되고 불각이 되었다가 불각이 부정되어 다시 본래의 본각으로 돌아오는 인식과정이 완전한 순환과정이기기는 하지만, 그

48)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2-6쪽 참조.

49)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0-1쪽 참조.

50)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7쪽 참조.

운동발전 과정이 부정의 계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2차 부정과 부정의 부정을 통해 다시 긍정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변증법적 견해들이라고 본다. 다만, 원효의 이 ‘부정의 부정’이 절대적 부정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의 부정이라고 비판한다.⁵¹⁾

한명환은 ‘해동종 철학의 변증법적 견해’가 갖는 ‘한계’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원효가 ‘화쟁의 변증법’을 관념론과 결합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즉 원효가 변증법을 일심이란 정신적 실체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변증법의 원리와 범주들은 주관적인 의사와 관계없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인데, 이를 일심과 결합해 설명함으로써, “본질상 객관 세계 합법칙성의 존재를 외곡하고 부정”했다는 것이다. 원효가 “변증법을 거꾸로 선 변증법”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⁵²⁾ 이에 대해 우선 드는 생각은 객관 세계는 물질과 정신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또 합법칙적 변증법과 같은 종류의 사유는 원효의 화쟁(和諍) 변증법 뿐만 아니라 역철학의 음양(陰陽) 변증법, 성리학의 이기(理氣) 변증법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7세기의 원효의 화쟁을 20세기 변증법으로 이해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원효의 변증법으로서의 화쟁을 관념론으로만 단정해 이해하는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둘째, “대립물의 통일을 발전의 견지에서 고찰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원효가 동일한 실체 속에서 대립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호관련성과 공통성만을 강조하고 상호 부정하고 배척하는 투쟁의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모든 발전의 원천은 대립물의 투쟁인데, 이 투쟁을 조화로운 결합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발전 그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⁵³⁾ ‘발전 자체를 거부했다’는 비판은 한명환이 앞에서 “비록 관념론적이기는 하지만 실체의 자기 운동, 자기발전도식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발전도식을 그려냈다’는 평가에 맞지 않는 평가다. 내가 보기에, 화쟁은 투쟁(대립)과 공존(통일)을 다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원효가 대립물의 상호 작용 설명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51)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8쪽 참조.

52)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쪽 참조.

53)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00쪽 참조.

대립물의 상호 작용을 보지 않고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다. 깨끗한 진여에 오염된 무명이 스며들고, 다시 무명에 진여가 스며드는 방식은 세계 “발전이 대립물의 동시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 간의 순조로운 조화와 타협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란 비판이다.⁵⁴⁾ 이 부분은 염법(染法)의 훈습(熏習)과 정법(淨法)의 훈습(熏習) 설명을 두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으로 보인다.

넷째, 원효가 부정의 계기를 순환론적으로 잘못 고찰했다고 비판한다. 원효는 세계 변화 발전의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선행 단계에서의 긍정적인 것의 보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의 부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다. 해동종 철학에서는 부정의 부정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복귀가 아니라 출발 상태로의 복귀로서 순환운동으로 고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쟁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한명환은 이런 해동종 철학의 변증법적 사유의 한계들이 관념론적 철학 체계가 갖는 피할 수 없는 한계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해동종 철학에서 보여준 변증법적 견해들은 당시 우리 민족의 발전된 변증법적 사유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⁵⁵⁾고 평가한다.

7. 맺음말: 원효 화쟁 사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한계

한명환의 원효 화쟁사상 연구 관점은 간단히 말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원효가 해동종철학을 창시했고, 매우 독창적인 불교승려학자라는 것이다. 이는 애국주의적 관점이다. 둘째, 원효가 피지배 계급 관점에서 봉건 착취 계급의 진보적 계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이는 서구에서 수입된 역사관으로 본 것이다. 둘째 관점의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본 원효의 화쟁 사상에 대한 평가는 첫째 관점의 민족철학을 구성하는 애국주의적 관점과

54)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쪽 참조.

55) 한명환(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쪽.

내적 모순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준모 (1988)가 이미 지적했듯이, 한명환 (2010) 연구에서도 원효의 화쟁 사상이 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맑스의 순수한 유물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사이에 있는 내적인 공통성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⁵⁶⁾ 이준모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남영 (1988)이 비판했듯이, 이곳에서도 한명환은 원효 글 인용문의 원문을 달지 않고 인용하면서 왜곡 여부와 자의적인 해석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⁵⁷⁾ 이남영의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인용 내용들의 수와 양이 이전 연구들보다 더 풍부해졌고 내용이 심화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관점은 민족철학을 구성하는 애국주의적 관점이다. 이는 주체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의 학술 연구는 북 체제가 기본 조건으로 삼는 민족철학으로서의 ‘주체성’이란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동종에 대한 역사적 구성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주장이다. ‘해동’이란 용어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던 것이고, 원효철학이 한반도철학을 대표한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철 (2009) 논문의 두 단락보다 더 나아가 ‘해동종’에 대한 역사적 실제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⁸⁾ 또 ‘해동종’이란 표현은 종파적 연구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 일본 불교학자들이 일본 불교의 종파성을 연구하는 관점으로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의 무비판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⁵⁹⁾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과 세계 학계에서 연구되는 유물론과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⁶⁰⁾

한명환은 원효의 ‘해동종철학’의 ‘화쟁사상’과 ‘해동종철학의 (화쟁) 변증법’에 대해서 김일성의 위 태도를 반영한 ‘김일성주의’와 ‘사회주의(변증법적 유

56) 이준모 (1988), 「[조선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32-3쪽 참조.

57) 이남영 (1988), 「북한의 [조선철학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11, 14쪽 참조.

58) 박철 (2009), 「『해동종』의 특징에 대하여」, 『력사과학』 제1호(무계 제209호), 47쪽, 2단 참조.

59) 앞 각주 33) 참조.

60) 김원명 (2023), 「남(南)의 철학자가 본 북(北)의 원효철학 연구」, 『철학·사상·문화』 제42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31쪽 참조.

물론)’ 관점의 연구와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1994년 북의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지도 이념 명기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조선철학전사』에서 ‘화쟁사상’과 ‘해동중철학의 (화쟁) 변증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김정일 교시를 적시하고⁶¹⁾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과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의 관점을 구성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61)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0쪽. 3항에서 원효철학사상의 인식론을 다루는 곳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적시하고 있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김일성전집》64권, 36페이지).”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81쪽 재인용.

참고문헌

- 고영섭. 2001. 「남북한 불교철학 연구의 실제」. 『오늘의 동양사상』 제5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 곽재훈. 2023. 「尹대통령, 광복회장·죽마고우 만류에도 “독립은등은 건국운동”」. 『프레시안』, 2023년 8월 15일 기사.
- 김교빈. 1992. 「남북철학계의 시각차와 북한 철학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 『인문논총』 제11집, 호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교빈. 1994. 「북한철학계의 전통철학 연구 경향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대와 철학』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원명. 2022. 「원효 철학과 한국 고대철학」. 『동아시아불교문화』 제51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김원명. 2023. 「남(南)의 철학자가 본 북(北)의 원효철학 연구」. 『철학·사상·문화』 제42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 김유리·서왕모. 2019. 「남북한 화쟁 이해의 비교」, 『한국불교학』 제89집, 한국불교학회.
- 박민철. 2019. 「‘조선철학’ 대 ‘한국철학’: ‘북’의 조선철학 연구 특징과 남북철학의 공동연구 가능성」. 『시대와 철학』 30-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박종홍. 1972. 『한국사상사 불교사상편-』 서문문고11, 서울: 서문당.
- 박 철. 2009. 「《해동종》의 특징에 대하여」. 『력사과학』 제1호(루계 제209호), 『력사과학』20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7, 50(4단).
- 이남영. 1988. 「북한의 조선철학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 이종찬. 2023. 「이종찬 광복회장 8.15 시론: 해방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 『조선일보』, 2023년 8월 15일 기사.
- 이준모. 1988. 「[조선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 이철우. 2023. 「건국 타령, 이제 그만」. 『동아일보』, 2023년 8월 14일 기사.
- 오구라 기조 지음, 2017. 이신철 옮김, 2022.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의 철학까지-』, 서울: 도서출판 길.
- 정진석·정성철·김창원. 1960 제1판, 1961 제2판. 『조선철학사(상)』, 평양: 과학원

력사연구소, 13, 25(2쪽).

정성철. 1987. 『조선철학사Ⅱ』,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성환. 2022.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고양: 소나무.

최봉익. 1975. 「제2절. 1)원효의 철학사상」. 『조선철학사상연구 고대-근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68-75(8쪽).

최봉익. 1976. 「제2절 원효의 《해동종》불교사상의 본질과 그 반동성」. 『봉건시기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철학의 전파와 그 해독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7-55(9쪽).

최봉익. 1986 1판, 2009 2판. 「제2절.1)원효의 철학사상」. 『조선철학사개요-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의 지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7-83(7쪽).

한명환. 1994. 「《해동종》 철학의 《화쟁》사상」. 『철학연구』제3호(루계 제58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40-2(6단).

한명환. 2009. 「3.1 원효의 해동종철학」. 『조선중세전기 철학사상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87-98(12쪽).

한명환. 2010. 『조선철학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9-209(61쪽).

Abstract

A Study on *Wonhyo's Hwajaeng* Thought in North Korea

- Focusing on '*Hwajaeng* Thought' and '*(Hwajaeng)* Dialectics' Found in *Han, Myeong-hwan's* (2010) 『History of *Joseon* Philosophy』(2) -

Won-Myoung Kim

This study introduces '*Hwajaeng* Thought' and '*(Hwajaeng)* Dialectics' among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s of *Wonhyo*" found in *Han, Myeong-hwan's* (2010) 『History of *Joseon* Philosophy』(2) and critically reviews them.

The order of the writing is as follows: First, there's an "Introduction." Second, we examined the "authoritarianism" and "socialism" systems within the "military system" as the background for the study of North Korea's philosophical ideology to understand North Korea's perspective of descript. Second, North Korea's literature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existing studies. Therefore, it's essential to introduce the accumulated studies and the contents of this book. Third, we explored 『History of *Joseon* Philosophy』(2) and "Social and Political Thoughts of *Wonhyo*".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text. Fourth, we discussed "The essence of *Wonhyo's Hwajaeng*: independent and dialectical thought, reflecting the needs of the ruling class". Fifth, we examined "The Logic of *Wonhyo's hwajaeng*: Developed Dialectic, relativistic sophistry". Sixth, we delved into "The Dialectic Method of *Haedongjong* Philosophy: The Positiveness and Negative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Hwajaeng* Dialectic". Seventh, we covered "The Ending Words: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Wonhyo's Hwajaeng*".

Han's research perspective on *Wonhyo's Hwajaeng*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it takes a patriotic view that *Wonhyo* founded the *Haedongjong* philosophy.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pressed class, *Wonhyo* is seen

as representing the progressive class within the feudal exploitation system. This second view adopts a historical materialism, influenced by historical materialism in marxism. However, evaluating *Wonhyo's Hwajaeng* idea from this materialistic standpoint presents limitations, as it contradicts the first patriotic viewpoint that forms the national philosophy.

HAN is continuing to research and evaluate the ‘*Hwajaeng* idea’ of *Wonhyo's 'Haedongjong* philosophy’ and the ‘(*Hwajaeng*) dialectic of *Haedongjong* philosophy’ from the perspectives of ‘*Kim Il-sungism*’ and ‘Socialism (dialectical materialism)’. In 1994, the ‘Marxism-Leninism’ guiding ideology was deleted from North Korea’s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History of *Joseon* Philosophy』 of 2010, *Kim Jong-il's* words are recorded in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Hwajaeng* Thought’ and the ‘(*Hwajaeng*) Dialectic of *Haedongjong* Philosophy.’ Moreover, it does not constitute a new alternative perspective to replace the ‘*Juche* ideology’ and ‘dialectical materialism’ perspectiv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flect the research on materialism and *Wonhyo's Hwajaeng* Thought studied in academia across the world.

Subject Areas: Korea Philosophy, Buddhism

Keywords: *Wonhyo, Hwajaeng, Haedongjong, Dialectic, Materialism*